

사회복지시설 탐방 ⑭ 임마누엘의 집 원장 이석우

치료와 선교 통한 편안한 安息處



임마누엘의 집은 청결함과 좋은 식생활로 장애인들이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왼편은 이석우 목사)

“장애인들에게 영육의 치료를 돕는 선교와 가정 같은 편안한 안식처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집(원장 이석우)은 1992년 4월 설립되어 뇌성마비와 전신마비, 소아마비, 근육무력증, 자폐증,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등의 장애인 가족들 20명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보

호시설로 조진부 신고시설이다. 이 시설은 현재 포천시 근내면 상성북2리 42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 현재의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1992년 당시 포천시 자차에서 1천만 원짜리 전세부터 시작한 임마누엘의 집은 장애인보호 시설이라는 사회의 편견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석우 원장(51·원안사진)은 “당시 CBS 방송의 ‘새롭게 하소서’란 프로그램에 출연 후 독자 가족들의 후원 등에 힘입어 현재의 위치에 땅을 사고 가건물을 지었다”며 초기의 임마누엘의 집을 회상했다.

임마누엘의 집은 이석우 목사와 부인, 식장직원 1명이 꾸려나가고 있으며, 83세부터 13세까지의 정신지체, 중박장애 등의 장애인 18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석우 목사 역시 20여 년 전 사고로 척추를 다쳐 하반신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이다.

“사고로 인해 6년동안 긴 병원 생활을 해보았기에 주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임마누엘의 집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이 목사.

“시설이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것이 좋은 것만인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단 한순간의 방송출연 이후 TV나 신문에 출연과 인터뷰를 사형해 오기도 했었다”고 밝혔다.

임마누엘의 집은 최근에 들어 IMF때보다 더욱 어려워진 경제사정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

다. 이 목사는 “덕영토건이란 건설업체에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있어 감사하지만 그 외의 도움이나 후원은 현재 거의 없는 상태라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덕영토건은 건설업체로 임마누엘의 집에 필요한 작은 설비부터 공사까지 설립초기부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마누엘의 집은 장애인이나 노인 생활보호 수급대상이 18명 중 16명이다.

최근 이 시설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쌀이다.

이 목사는 “빵사로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아이들과 먹을 수 있는 쌀이 가장 부족하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 시설에서 소비하는 쌀은 1달에 2.57t 정도이다.

이 목사는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 모두 교육의 혜택을 받기를 원하지만 현실을 그렇지 못하다.

“현재 14세 아이가 청성초등학교에 일주일에 1번씩 등교해 교육을 받고 있지만, 정신적인 능력

이 이에 미치지 못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며 “앞으로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장애인인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소망이다”고 밝혔다.

임마누엘의 집은 신고시설이 되기 위해 올해 안에 건물 신축에 들어간다.

이 목사는 “2억 3천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약 90여평의 건물을 지을 예정이다”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기 위해 1억 원 이상 융통을 해서 건축하는 것만으로도 만복 사회에서 편견을 갖지 말고 바라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목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건물이 지어지면 그나마 지금 이뤄지는 봉사조차 끊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다.

“건물이 그럴듯해지면 의례 봉사자들은 더욱 허밍하고 낯은 건물이 지어진 시설을 찾게 된다”며 “건물만 지어질 예정이고 시설의 형편이 좋아지는 것은 아닌 만큼 지역사회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마누엘의 집은 항상 청결함을 유지하고, 잘 먹인다는 목표에 장애인들이 세상에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한 밑거름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후원계좌: 031-01-337431 (농협, 이석우) 지역매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 심터

청소년과 핸드폰



석혜승  
보문정사주지

얼마 전 서울 YWCA에서 서울 시내 중·고등학생 1300명을 대상으로 “무인도에 갈 때 반드시 가져가야 할 것”을 물었더니 식량(33.8%) 다음으로 휴대전화(21.5%)를 꼽았다. 이어서 컴퓨터(18.8%), 친구(14.5%), 가족(11.8%) 순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무인도라는 설정을 해석함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가족이나 친구보다 휴대전화를 2위로 뽑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생각해보니 요즘 공공장소에서 청소년들 대부분이 핸드폰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떠오른다. 이미 청소년에게 휴대전화라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일부분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 상황에 이러한 현상들이 비합리함을 따지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일지라도 그래도 한번쯤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절속이 늘수록 접촉이 줄어들어가는 누군가의 말처럼 문명의 이기로 인해 가족과 친구의 소

중한 관계가 갈수록 파괴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청소년들에게 느껴지는 요즘 큰 문제점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어려울수록 자기만의 세계에 더욱 깊게 빠져들 뿐이다. 한 자루의 칼이 사람을 살리는 매스가 되기도 하고 사람을 상하게 하는 흉기가 되기도 한다는 말이 있다. 문명의 이기물 자체가 문명이라 아니라 문명의 이기물을 다룰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의 자라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갈수록 병들고 집착된 인간 관계를 만들뿐이다. 우리의 자녀들은 분명 문명의 이기가 아닌 문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기성세대들이 책임져야 할 일이다. 현명한 부모들이 되어야 한다.

필자 연락처 031-542-0032

우수 4-H 꿈나무 발굴 · 육성한다

4-H 연합회 청소년의 달 모범학생 표창



지난 26일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마련된 모범 4-H 회원에 대한 시상 후 센터 정문에서 담양교사와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실시했다.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서)는 지난 26일 센터 세미나실에서 모범 4-H 회원 및 우수 4-H 회원 표창을 실시했다.

청소년의 달을 맞아 우수 4-H 꿈나무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시상식은 선단초, 이곡초, 왕방초, 중리초 학생과 교사 10명이 표창을 받았다.

모범 4-H 회원 표창은 황재운(선단초), 류새라(이곡초), 이태정(왕방초), 최성민(중리초) 우수 4-H 회원 표창은 배미경(선단초), 이용기(중리초) 도서상품권은 선단·이곡·왕방·중리초가 지원받았다. 한편 관내 초등학교 4-H 회원은 선단초 34명, 이곡초 64명, 왕방초 23명, 중리초 23명으로 총 144명이 등록돼 있다.

지역매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자원봉사센터는 경북대학 우당관에서 지난 4월8일부터 5월20일까지 7주 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한 40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수료식을 갖고 조건 없는 진정한 자원봉사활동을 다짐했다.

조건 없는 진정한 자원봉사

20일 포천자원봉사대학 40명 수료식

포천자원봉사센터는 경북대학 우당관에서 지난 4월8일부터 5월20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1시부터 5시까지 7주 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한 40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수료식을 갖고 조건 없는 진정한 자원봉사활동을 다짐했다.

이날 수료식에 참석한 강태선 포천시새마을지회장은 “포천의 밝은 미래를 위해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은 꼭 필요한 분들이라며 7주 동안 배운 것을 헛되이 버리지 말고 밝은 포천의 미래를 위해 써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대학 김정문 교수는 “공부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얼굴은 매우 밝

다. 하고 싶은 일을 했기 때문”이라며 “남을 위해 봉사하는데 공부한 것을 사용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자원봉사대학 치유레크리에이션 수강신청자는 모두 55명이었는데 이중 7주 전원 출석 21명, 1회 결석 17명, 2회 결석 2명 등 모두 40명이 수료하게 된 것이다.

이날 자원봉사대학을 수료한 포천신문 주부 명예기자단 남만우 일동지부장은 “진정한 봉사활동을 위해서는 항상 다양한 연수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찬양으로 실천하는 봉사”

할렐루야찬양 선교단 봉사활동 전개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소외된 사람을 실천하는 선교단이 결성돼 왕성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의 청송이 자자하다.

대안예수교 장로회 포천 은누리교회(목사 이재운·신복면 기지리)는 지난 3월 6일 할렐루야 찬양 선교단을 결성, 매월 2·4주차 주일 오후에 군부대와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찬양봉사와 노력봉사를 펼치고 있다.

이재운 목사를 단장으로 이운은 전도사가 지도하는 할렐루야 찬양 선교단은 지난 3월 13일 에베에셀 군인교회를 시작으로 지난 8일 마리아 양로원까지 6회 봉사를 실시했다. 이운은 전도사는 “봉사활동은 종교와 상관없이 실시하고 있다”며 “아직은 시작단계라 정보도 미흡하지만 활성화되면 활동영역

을 넓혀 2조로 나눠 실시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활동에 있어 재정부분이 가장 힘이 들지만, 학생들로 구성된 선교단원들의 교육적 측면과 교회의 단합에 있어 고무적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찬양선교단 관계자는 “회원 확보가 절실하다며 은누리교회는 봉사는 종교와 계층을 떠나 포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분들의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할렐루야 찬양선교단은 현재 19명의 회원들이 자비로 떡과 빵, 음료 등을 준비해 군부대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고 있다.

봉사문의 : 017-679-7950(전도사 이운은)

지역매 기자 94spice@hanmail.net



은누리교회 할렐루야찬양선교단이 군부대우물을 마치고 군인들과 함께 했다.

포천동 주민자치센터 자치역량 강화

제주시 삼도1동 주민자치센터와 자매결연

포천동 주민자치센터(위원장 박왕근)와 제주도 삼도1동 주민자치센터(위원장 강현치)는 지난 19일 포천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상호간의 우호증진과 주민자치센터교류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번 자매결연은 포천동이 타 주민자치센터와의 정보공유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사랑 받는 자치센터 육성을 위해 준비해온 것으로, 양 센터는 문화, 체육, 청소년문화, 예술, 스포츠 친선경기, 시민 및 사회단체간 민간교류 등 분야에 걸친 각종 교류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포천동 관계자는 “이번 자매결연은 포천시의 자원이 전무한 상



포천동 주민자치센터와 제주도 삼도1동 주민자치센터간의 자매결연으로 포천동 주민자치센터는 자치역량강화에 한 걸음 나아가게 됐다.

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있는 행사였다”며 “앞으로 삼도1동과의 우호 관계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치센터의 자치역량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역매 기자 94spice@hanmail.net

詩集 ‘물의 노래’ 발간

대진대학교 영문학과 박정근 교수

“긴 세월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핏덩어리를 쏟아놓는 기분이다” 대진대학교 영문학과 박정근(50.사진)교수가 詩集 ‘물의 노래’ (창조문학사, 6천원)을 펴내면서 첫머리에 밝힌 말이다.

박 교수는 “오래동안 음어리져서 나를 괴롭힌던 지난날의 아픔이나 괴로움을 털어버리지 않고서는 제대로 호흡할 수 없다는 절박감이 있었다”며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 혼자만의 비밀처럼 간직하던 고통스러우면서도 달콤하기도 한 시어들을 속으로 뇌피곤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박 교수는 “오래동안 가다리고 망설이다가 나만의 탐욕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솔직한 마음이 되었다”는 마음으로 끝없이 뻗어있는 강줄기나 넓게 퍼져 있는 호수를 바라보며 물안개로 피어나는 여러 분신들에게 감히 내밀어 본다”고 말했다.

박정근 시집 물의 노래는 ▶물의 노래▶겨울이야기▶낙엽의 노래▶바람의 노래▶사랑타령▶이국에서 부르는 노래▶산의 노래로 나뉘며 68편의 시가 수록돼 있다.

양무북 대진대교수는 시평중에



시집 ‘물의 노래’ (좌)를 발간한 대진대 영문학과 박정근 교수(우)

서 “그의 시는 동양적인 자연사상, 즉 대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통해 진정한 삶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무위자연사상(無爲自然思想)에 닿아 있다. 계절에 따른 자연의 변화 속에서 오묘한 우주의 섭리를 엿보다 하고, 이를 인간 삶에 적용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밝히려 하는 그의 시세계가 앞으로 얼마나 큰 진보를 이룰 것인지 기대를 받는다”고 밝혔다.

박정근 교수는 고려대학교에서 영문학박사를 받았으며 현재는 대진대학교 대학원장이며 한국 세익스피어학회 공연부회장, 포천문인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여성회관 사군자반 경사났네”

금란 조호숙씨 사군자 입선

포천시여성회관 사군자반(감사 서귀순) 조호숙씨(46·소흘읍 송우리)가 지난 16일에서 창경궁에서 개최된 제37회 신사임당날 예능대회에서 사군자부문에서 입선했다.

예대한주부클럽연합회(회장 김천주) 주최로 신사임당의 덕과 열을 기리고 여성예술인을 발굴하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서 조 씨는 매화를 세련되게 쳐 입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회는 시, 시조, 수필, 동시, 동화, 서예(한글, 한문, 문인화), 자

수, 노래 등 11개 부문에 걸쳐 열렸으며 전국적 여류명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조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여성회관 사군자반에서 수강했으며 짧은 기간동안 눈에 띄게 기량이 향상돼 입선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여성회관 사군자반은 12년



여성회관 사군자반 감사 서귀순씨(우)와 제37회 신사임당 예능대회 사군자부문 입선한 조호숙씨(좌)가 함께 했다.

백담 서귀순씨가 감사로 있으며, 최근 각종 대회에서 50명 이상이 입상할 정도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매 기자 94spice@hanmail.net



소흘읍 30개 부락에 3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소흘읍새마을부녀회는 지난 24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송우리 시내에서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알뜰바자회를 개최했다.(왼편은 이장수 회장)